"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_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서민(가명)이의 이야기_

성실한 아버지와 다정스런 어머니! 3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 석민(가명)이네는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집이였습니다.

개구쟁이 석민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신적 충격 탓인지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일만 하던 석민이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용근로를 시작해 밤낮없이 일을 하느라 그런 석민이를 살뜰히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석민이의 불안 증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멍하니 홀로 있는 일이 잦아졌고 낯선 곳, 낯선 사람을 만나면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를 쥐어잡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만만치 않은 검사비용과 정기적인 치료비용이 부담이 돼서 선뜻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석민이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 홀로 남은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석민이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